

이름 김 지 선

1. 파견대학 관련

| | |
|-------------------------------|--|
| 파견대학 | 영국 Huddersfield University |
| 파견기간 | 2011.09.14 ~ 2012.06.19 |
| 귀국여부 | 네 () 아니오 (7월 3일 귀국예정) |
|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rinciples of Advertising and Marketing Communications 2.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3. Problem Solving and Decision Making 4. French language (초급) 5. Spanish language (초급) <p>우선 나는 4년 내내 하나의 전공 학과 내에서 유기적으로 지도를 받는 학생들과는 달리, 겨우 1년 동안만 수업을 듣는 교환학생이다 보니, 딱히 수강신청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지도 교수님께 여쭙보니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그냥 각 수업들의 시간이 서로 겹쳐 지지 않도록 잘 염두 해서 최대 120학점까지 들을 수 있다고 했다.</p> <p>한국에서는 의과대학 계통 전공이었는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전공으로 하기로 했다. (나는 이미 내 전공의 졸업 이수 학점을 거의 다 채운 거나 다름없어서 이게 가능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한국과 동일하게 4학년 수업을 듣자니 너무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모든 수업을 1학년 레벨로 들었다. 여기 영국 학교는 학교별로 조금씩 시스템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내가 다닌 허더스필드 대학교는 가을학기에 수강신청을 한번 하면 그게 주욱 1년 동안 지속이 된다. 크리스마스 전후로 30일간 방학이 있고, 개강을 해서 1월, 2월, 3월 말까지 수업을 또 하다가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봄방학이 있으며, 4월 16일부터 개강을 해서 3번째 학기가 진행된다. 학과 별로 시험날짜가 언제 잡히느냐에 따라 세 번째 학기의 실질적인 기간은 달라진다. 1학년 레벨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택한 모든 수업이 첫번째 학기 (가을 학기) 동안에는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 그 대신 마케팅 수업이나 경영 관련 수업 두 가지의 경우, 그룹 단위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시키거나 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했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마케팅 수업은 1년 동안 한국에서와 같은 일반 수업, 조별끼리 주어진 주제에 관해 조사 후 발표, 또 다른 주제에 관한 에세이(2500자 이상)를 써서 내는 과제가 있었고, 1년 학기가 끝나기 직전 5월 8일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시험을 치렀다. 물론 범위는 1년간 배웠던 내용 전 범위^^;; 수업은 굉장히 재밌고 푹부러지게 배</p> |

| | |
|--|---|
| | <p>왔던 것 같다. 교수님께서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 반 친구들 모두가 좋아했었던 수업이었다. 그리고, 창의력과 기업가의 정신이라는 수업에서는 1년 내내 시험은 안 치르고 여러 번에 걸친 그룹별 과제와 그룹별 프로젝트가 주어졌고, 두 차례의 에세이(3500자 내외)를 써서 내야 했다. 여기 에세이는 기본 5-6 개의 논문이나 저널 같은 걸 참고로 해서 자기 의견을 충분히 뒷받침 해 주면서 써야 한다. 경영학과 소속 세부 전공인 Enterprise 에 속해있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반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었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 세부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바탕으로 수업을 들었고, 절반은 그룹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되어 토론을 많이 했었다.</p> <p>그 다음 세 번째로 들은 과목은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관련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이 가장 흥미로웠다. 그 내용이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응용될 수 있고, 늘 항상 우리가 별다른 체계적인 시스템 없이 그냥 행동으로 해 오던 부분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며 배운다는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이 수업은 절반이상이 그룹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되었다. 매 시간 조별 토론을 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중고책 교환 사업을 시작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해 본 뒤, 그 과정 속에서 겪은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문제해결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제가 주어졌었다. 매 수업마다 개개인별로 피드백과 튜터링이 이루어졌었다. 이 중고책 관련 비즈니스 프로젝트는 조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었는데 무척 인상 깊었다. 단순히 책에서 배우는 이론 그 이상의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p> <p>다음으로 프랑스어 수업과 스페인어 수업.... 영국에서 배웠으니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그런데 참 좋았던 점은 두 가지 다 현지에서 오신 프랑스인 선생님과 스페인 사람인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셨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기회가 되면 프랑스어랑 스페인어랑 이탈리아를 꼭 한 번 배워야지 하고 버르고 있었는데, 마침 비즈니스 전공 학생들은 무료로 외국어 수업을 듣고, 학점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곧장 뛰어가서 수강 신청을 했었다.. ^^ 이 두 과목에서만큼은, 내가 반에서 계속 1등을 했다. 듣기 시험, 쓰기 시험, 읽기 시험, 말하기 시험을 2학기 동안 두 차례 나누어서 치뤘었는데, 평소에 노트정리를 하며 꼬박꼬박 공부해 온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애네들도 1학기에는 아무런 시험이 없었다. 그래서 좋았다.^^</p> |
|--|---|

| | |
|---------------------------------|--------------------------------------|
|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 (저의 경우 1년간 똑같은 수업이 지속되었으므로 생략합니다) |
|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 학비 외에 따로 추가적으로 학교나 학과에 지불한 돈은 없었습니다. |

2. 생활전반 관련

| | |
|------|--|
| 숙소 | 학교기숙사 (Storthes Hall Park) |
| 숙소비용 | 샤워실 겸 화장실이 딸린 방을 택할 경우, 1년에 3813파운드 (약 690만원 정도) |
| 숙소평가 | <p>학교 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는 타운에서 학교 셔틀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들어오면 약 14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엄청 큰 규모의 빌리지가 있다. 스쿨 버스는 매 시간 20분, 50분 마다 주기적으로 학교와 기숙사 사이를 오간다. 기숙사에 살기 시작하자마자 리셉션에서 셔틀버스 1년 패스 카드를 10 파운드 정도 주고 사서 버스를 탈 때마다 기사 아저씨께 제시하면 버스비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p> <p>기숙사 단지에 건물이 무수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한 건물당 4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 층당 두 개의 flat이 있고, 한 플랫폼당 화장실이 각각 따로 갖추어진 1인실 방이 총 8개가 있으며 8명이 한 주방을 함께 사용한다. 주방에는 8개의 개인용 서랍장이 구비되어 있고, 핫플레이트 8개, 오븐 하나, 전자레인지 2개, 냉장고 2개, 냉동고 2개, 싱크대 2개가 있다. 큰 식탁이 있고, 의자도 8개가 있다.</p> <p>전반적으로, 몇몇 다른 친구들이 사는 학교 근처 기숙사보다 여러모로 생활하기에 적합했던 것 같다. 방은 1인실인데도 우리 순천향 대학교 기숙사 2인실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 주방을 8명에서 함께 셰어를 하다보니 다양한 나라에서 온 flatmate들과 음식에 대한 얘기도</p> |

| | |
|------|--|
| | <p>많이 하고, 서로 자기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맛보여주고, 레시피도 서로 알려주고, 파티도 하고, 함께 피크닉도 가고 참 좋았다. 나 같은 경우, 기숙사 신청을 할 적에 여성전용 플랫을 선호한다고 체크를 해서 우리 플랫에는 여자만 8명이었다. 영국인 친구 3명, 불가리아인 친구 1명, 루마니아인 친구 1명, 중국인 친구 1명, 독일인 친구 1명, 한국인이 나 1명, 이렇게 총 8명이었는데 다들 마음이 잘 맞아서 완전 재밌게 기숙사 생활을 했던 것 같다. 또 우리 건물에 사는 애들끼리 페이스북에 그룹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등록하고, 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았는데, 자주 (시도때도 없이...^^) 플랫 여기저기에서 파티를 열어 함께 어울려 놀곤 했었다.</p> <p>다만, 빨래를 하기 위해선 빌리지 가장 끝 쪽에 위치해 있는 건물까지 가야 했고, 세탁기 한 번 돌리는 데에 2파운드(3600원), 건조기 한 번 돌리는 데에 1파운드(1800원)가 들었다.</p> <p>우편물은 리셉션 건물에서 리스트 확인, 학생증 확인한 후에 받으면 되고, 매점 같은 편의점이 그 건물에 같이 있다. 하지만 학교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 (세인스버리, 테스코)에서 주로 장을 보고 필요한 것들을 샀다. 가짓수도 훨씬 다양하고, 가격도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p> |
| 식사 | <p>기숙사에서 언제 어느때든 내가 직접 요리를 해서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별 다른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직접 해 먹었다. 다만 학교에 하루 종일 있어야 하는 날이거나 친구랑 만나서 외식을 해야 할 경우 학교에서 걸어서 5분도 채 안 걸리는 타운 중심에 있는 레스토랑을 이용했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영국 식당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있는 피자헛이나 맥도널드, KFC 등등의 패스트푸드점 마저도... 맛이... 좀.... 뭔가... 돈이 아깝게 여겨질 정도다. 그리고 영국은 술을 마실 수 있는 펍이랑 레스토랑이 같이 겸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p> |
| 식사비용 | <p>나름 괜찮은 곳에서 먹으면 12-15 파운드 정도, 많게는 20파운드 정도가 든다. 하지만, 간단히 서브웨이, 맥도널드나 KFC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p> |
| 식사평가 | <p>나는 입맛이 좀 남달리 까다로운 편이어서 내가 직접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서 먹는 것을 좋아했다.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외식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쪽으로 지냈다. 너무 별로여서... ^^;; 하지만 주변 도시에는 TGI Friday's도 있고, Pizza Express, Nandos (아침 난도스는 허더스필드에도 있다) 등 더욱 다양한 레스토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놀러 다닐 때는 한결 마음이 편했다. 나폴레옹이 예전에 핀란드 음식을 맛본 후에 영국 음식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평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직접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해 먹는다면, 타운에 한국 식료품도 조금씩 파는 차이니즈마켓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p> |

| | |
|------------|--|
| | <p>살 수 있다. 간장, 고추장, 부침가루, 튀김가루, 한국쌀, 김, 한국 라면 등등 기본적인 건 다 판다. 야채나 과일, 고기, 해물, 빵 등 식재료들은 세인스버리나 테스코에서 사면 되니까 얼마든지 한국에서 먹듯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다. 파스타 소스도 맛있는 게 많고, 파스타 면 재료도 엄청 다양하게 판다. 영국인들이 즐겨먹는 키브 (닭가슴살 튀김 속에 치즈랑 햄이랑 야채가 들어가 있는데 오븐에 구워서 먹는다)도 먹을 만 하고, 그 외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 빵 같이 생긴 것도 오븐을 이용해 구워 먹을 수 있다. 어쨌든 나는 주로 한국에서 보내 준 밥솥으로 밥을 해서 먹곤 했다.</p> |
| 보험 | <p>영국은 미국과는 달리 대학교 내에 있는 Health Center에서 학기 초에 등록을 한 뒤, 담당 의사와 면담을 하고 몇 가지 검사를 무료로 하면 언제든지 사소하게 아픈 건 찾아가서 문진을 받을 수가 있다. 달리 말해 따로 별다른 보험을 들지 않아도 영국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다면 무료로 기초적인 범위 내에서 의료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물론, 큰 병이 나거나 사고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 수 있겠지만, 한국처럼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굳이 따로 보험을 권유하거나 보험에 관한 언급을 따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p> |
| 한달 생활비(대략) | <p>쇼핑을 하거나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많이 쓰지 않는다면, 한 달에 대략 50만원(250파운드) 정도 든다고 본다. 나는 과일을 다양하게 자주 사먹는 편이었고 야채나 식재료를 다양하게 구입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취할 때와 비슷하게 잘 해 먹고 완전 건강하게 지냈던 것 같다. 다만 1인분을 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야채나 식재료를 사다가 조리직전 상태로 다 손질을 해서 조금씩 팩에 싸서 냉동실에 얼려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곤 했다. 그래서 음식물 낭비는 거의 없었다. 그 외에 샤워용품, 휴지, 키친타올, 주방세제, 세탁 용 세제, 기타 등등을 정기적으로 샀고, 초반에는 식기도구랑 생활용품들을 일일이 다 구입해야 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다.</p> |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예) 이것만 알고 갔어도 그런 시행 착오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나는 미리 알고 오지 못해서 후회를 했거나 시행착오를 겪은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영국으로 오기 8년 전부터 영국 생활을 해온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거나 궁금한 일이 생기면 그때그때 물어보고 해결을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다만, 내가 경험자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몇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게 있다.

첫 번째로, 16세-25세 YOUNG PERSON CARD 라고 불리는 영국 철도청 청소년 할인 카드가 있다. 기존 성인 가격에서 30%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 내에 여러 도시들을 방문해 볼 의향이 있다면 1년 권을 구입해서 기차표를 살 때 마다 제시를 하면 된다. 나는 기차를 자주 애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다. 가격은 23파운드(약 4만원 정도).

그리고 주요 철도청은 Virgin Train인데, 같은 시간대의 열차라도 한달 전 또는 2주전에 예매를 할 경우 기존 가격보다 거의 반값에 살수가 있다. 그리고 기차별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 기차표가격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기 멋대로 마구마구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일찍 일찍 기차표를 끊어놓는 게 좋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한 시간과 좌석을 지정하지 않고 언제 어느 때건 상관없이 같은 노선 상에 있는 기차편을 타는 방식인 off-peak 이라는 종류의 표를 산다. 그래서 예약된 자리라는 표시가 없는 자리에는 어디든 앉을 수 있다. 또한, 어떤 도시를 갔다가 다시 허더스필드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편도인 single 티켓 대신 왕복인 Return 티켓을 사면 가격을 절반 가량 절약할 수 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리턴 티켓이 편도 티켓으로 따로 살 때보다 반값 정도 저렴한 것 같다.

두 번째로, 휴대폰은 원래 자기가 쓰던 폰을 들고 와서 Sim카드만 따로 사서 장착한 다음 쓸 수가 있다. 겨우 1년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처럼 2년 약정을 걸어 쓰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충전하듯이 (심카드 살 때 주는 고유 바우처 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한 20파운드 정도 넣어서 쓰다가 어느 정도 지나서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일정금액을 충전해서 쓰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자기가 써보니까 20파운드 충전하고 한 달도 채 안 되어서 금액이 바닥 났다면, 매달 정액제로 쓰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주요 통신사가 VODAFONE, ORANGE, O2....이렇게 있는데, 그 중 O2(오투)의 계열인 giffgaff라는 게 있다. 인터넷에서 심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무료로 집으로 보내준다. 그러면 그 심카드를 받아 자기 폰에 넣어 폰을 키고 giffgaff 측에서 오는 메시지의 내용을 따라 실행을 하면 자신의 폰 번호를 인터넷 사이트 상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한달에 최소 5파운드에서 10파운드, 많게는 20파운드까지 골라서 매달 충전(top-up)을 해서 쓸 수가 있다. 10파운드짜리부터는 인터넷도 무제한이기 때문에, 나는 주로 10파운드씩 탑업을 했다.

세 번째로, 가을에 새 학기가 시작되면 유럽 각지에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수업을 듣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한 차례 전염병 비슷하게 감기증상이 급속도로 번지는 시기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손과 발을 청결히 씻는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감기 기운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오렌지주스 (여기서는 Tropicana original이 가장 맛있다)를 사다가 머그잔에 2/3 정도 채워서 전자레인지에 3분 데운 뒤 뜨거울 때 조금씩 마시면 온 몸에 따뜻한 기운이 짝 퍼지고 피부에 수분기가 느껴진다. 차가운 오렌지주스와는 다른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주 마셔주면 감기예방에 최고로 좋다. 나도 여러 번 애용했고 우리 플랫 친구들에게도 내가 알려주어서 그 애들도 자주 애용한 비법이다. 다만, 다 마신 뒤에 덥다고 찬 바람을 쐬면 절대 안 된다. 어쨌든 나는 이 방법을 써서 지난 1년간 영국에서 지내면서 감기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다음으로, 영국 학교 수업 시간표는 매시 15분부터 시작한다. 한국은 매시 정각에 시작하는

데, 15분 늦게 시작하니까 뭔가 새롭게 느껴졌었다.

또 한가지 알려주고 싶은 건, 수돗물이 한국에서처럼 그리 깨끗한 편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국은 수돗물에 석회성분이 엄청 많은데, 이것 40년 넘게 지속적으로 마시고 먹게 되면 살이 울퉁불퉁해진다거나 다른 부작용이 많다고 들었다. 차를 마시거나 요리를 할 때 가급적이면 필터가 장착된 물통에 (마트에서 판다) 한번 걸러서 사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나는 그냥 생수를 사다가 이용했다. 물은 그냥 일반 spring still water가 있고, sparkling water가 있다. 스파클링 워터는 탄산이 들어가 있어서 쓴 맛이 강하다. 물을 살 때 잘 보고 사야 한다.

영국은 겨울이 한국에 비해 조금 더 긴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보다 춥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엄청 추운 '한 겨울' 빼고는 오히려 한국에 비해 덜 추운 편이다. 비도 맨날 맨날 추적추적 내릴 줄 알았는데, 가끔씩 왔고, 눈도 몇 차례 안 왔다. 영국 북부 쪽이라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편이라서 우산을 이왕 쓰려면 장우산(우산대가 튼튼한... ^^)을 하나 사거나 가져오는 게 좋다. 접는 우산은 우산대가 너무 약하고 바람에 쉽게 잘 뒤집어져서 안쓰니만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국에 온 김에 방학을 활용해서 유럽 여행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서 미리 선글라스를 사서 오는 게 좋다. 여기서 품질이 좀 괜찮은 걸 사려면 가격이 엄청 비싸기 때문이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대학교에 입학하면 꼭 반드시 이것만은 해 보아야지 했던 몇 가지 항목들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다. 1학년 겨울방학 때 미국 포틀랜드로 3주간 어학연수를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나에겐 미국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그다지 많이 낯설거나 특별한 느낌이 없었기에 만일 나중에 교환학생이 되어 해외로 간다면 유럽 쪽으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 왔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토플 점수를 낸 다음 원서를 내려고 보니 우리 학교 자매결연 맺은 학교 리스트 중에 유럽 소재 학교는 영국 허더스필드 대학교와 핀란드에 있는 어느 대학교가 있었다. 핀란드와 영국 두 나라 중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하다가 개인적인 비교 분석을 토대로 마침내 영국으로 결정을 지었다. 허더스필드는 영국 북부쪽 요크셔 지방의 한 도시로 맨체스터나 리즈와 가깝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국으로 올 때 핀란드를 거쳐 최단거리(9시간 소요)로 올 수 있는 핀에어(Finair)를 이용했다. 수하물 캐리어 2개(하나당 23kg 미만)를 끌고 탔었는데, 하나는 무료이고, 하나는 인터넷 상에서 짐을 미리 추가하여 한 8만원 정도를 더 냈었던 것 같다. 학교 측에서 맨체스터 공항에서 학교 기숙사까지 무료 픽업 서비스를 해 주어서 편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기숙사는 위에 언급했다시피 넓은 편이고 아늑했다. 수납공간도 충분했고, 스탠드도 구비되어 있었다. 다른 플랫과는 달리 우리 플랫에는 온통 여자애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무척 조용하고 편했다. 미리 사전에 여성 전용을 선호한다고 알려주면 된다. (기숙사 입사 신청 할 때) 기숙사가 타운과는 좀 먼 곳에 있어서 근처에 레스토랑 같은 음식점이 없다. 대신 학교 바로 옆에 이마트만큼 커다란 대형마트가 있기 때문에 수업 마치고 거기서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기숙사 키친에서 음식을 해 먹으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함은 못 느꼈다. 그리고 맛있는 식당 음식을 돈 주고 사 먹느니 직접 내가 만들어 먹는 게 경제적으로나 건강을 위해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대가 비슷비슷하다보니 같은 플랫을 쓰는 애들과 자주 마주치게 된다. 함께 서로의 요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점차 친해지면 개인적인 수다도 더 많이 떨게 되고 그러다보면 엄청나게 정이 많이 든다.^^ 나 같은 경우 두루두루 친하기도 했지만, 그 중에도 유난히 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 불가리아에서 온 대학원 과정의 오펔리아언니, 독일에서 온 멜라니, 중국에서 온 링 언니, 루마니아에서 온 알렉산드라, 영국 토박이인 로자나... 등등 ^^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우리 플랫 키친에 와서 밥을 먹고 가곤 했던 불가리아 애들 스테판과 지프코 ^^!! 애들 둘 덕분에 저녁시간이 항상 즐겁고 재밌었다.

내가 유럽국가를 애초부터 목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장래희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지금은 순천향대학교에서 임상병리학과에 소속되어 양의학에 관한 내용을 배웠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한의학 관련 분야이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의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여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의사가 되어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경험을 쌓은 후에 독일이나 스위스, 또는 프랑스.... 마음 같아선 영국, 스페인, 이태리 할 것 없이 그냥 유럽권 여러 나라를 누비고 다니며 전통 한의학에 근간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현명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주며 한의학 의술을 펼치는 게 내 꿈이다. 돈을 벌 목적으로 단순히 의술을 행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한의학은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한 점에서 뛰어나기 때문에 모두들 그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실생활에 적용해가며 살아가면, 더 이상 병원이 필요 없고 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의 생활과 삶에 기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내 궁극적인 바람이다. 그리하여 한의전에 입학하기 이전에 내가 꿈꾸는 이 목표가 과연 제대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을지 아닐지를 직접 내 두 눈으로 확인을 해 보고자 이렇게 유럽으로 온 것이다. 학교 친구들, 그리고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많은 사람들, 기숙사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유난히 더 많이 마음이 잘 맞고 가까운 친구들의 가족들.... 이렇게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그닥 어렵지 않았다. 워낙 내 성격이 슈퍼 긍정이라 그게 더 쉬웠을런지도 모른다. 하지만 단순히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겠다는 생각보다는, 한 사람, 두 사람을 사귀더라도 진짜 내가 평생 연락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참된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간절했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프랑스에서 온 줄리엣과 독일에서 온 멜라니를 알게 되었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우리 사이에는 뭔가 끈끈한 emotional connection 같은 게 있었다. 굳이 애써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번의 미소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짜 친구 ^^ 아니나 다를까, 서로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하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진짜 더 반갑고, 이렇게 서로를 알게 된 사실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존재들이다. ^^

방학 때 마다 유럽 내에 있는 몇 개국을 돌아다니며 여행을 했었는데, 겨울에는 줄리엣이 사는 프랑스 동부쪽을 돌며 줄리엣 네 집에서 일주일간 머물렀다.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나 생활 모습을 좀더 제대로 보고 느끼려면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함께 생활해보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리고 진짜 그랬다. 사과파이도 직접 구워서 주시고, 무척이나 다양하고 맛있는 프랑스 음식들을 해 주셨었다. 또 친한 친구들끼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열렸던 친목파티에 줄리엣과 함께 동참해서 프랑스인 친구들을 무더기로 사귀었다. 정말 좋은 기회였다. ^^ 그리고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가 끼여있었던 터라, 줄리엣네 친척들과 함께 다같이 무려 4시간에 걸친 푸짐한 저녁식사도 했었다. 유럽권은 크리스마스가 대명절이나 다름없다. 다같이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 받고, 거실에 둘러앉아 재밌는 게임도 하고, 사진 앨범 구경도 하고, 밤 산책도 하고..... 정말 너무 좋았다. ^^ 다른 날엔 스트하즈부, 베상송, 리옹 등을 돌아다니며 줄리엣의 가이드를 받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마지막날 점심메뉴는 내가 줄리엣네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김치전을 만들어 드렸다. 굉장히 맛있게 드셔서 너무 뿌듯했다. 계속 얻어 먹기만 하고 달리고마음을 표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라도 뭔가를 직접 해 드리고 싶었다. 영어로 편지도 써 놓고 왔다.

스위스 취리히부터는 나 혼자서 여행을 했다. 해외여행을 혼자서 해 본 적이 없어서 처음엔 좀 걱정 반 기대 반 이었는데, 막상 돌아다녀보니 어느 나라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다. 치안문제도 나한테만큼은 예외였는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이태리 밀라노, 베네치아, 피렌체, 로마, 그리고 영국 런던까지 대략 3주정도를 돌아다니고 학교가 있는 허더스필드로 돌아왔을 때 느꼈던 그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 처음 영국 땅을 밟고 모든 게 새롭고 낯설어 모든 것에 적응을 하며 느꼈던 그 기분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태리에서 영어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뭔가 영국사람이 더 많이 친근하게 느껴지고, 허더스필드가 더 포근하게 느껴지고 ^^ 아무튼 그랬다.

방학이 끝나고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다. 다들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그저 만나면 반갑고, 좋았다. 나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었는데 여긴 뭔가 나이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언니나 오빠, 또는 높임말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서 더 그랬을 지도 모르겠다.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허물없이 애들이랑 지냈던 것 같다. 아는 애들 여럿이서 모여 근처에 있는 castle hill도 올라갔다 오고, green head park도 갔다 오고 참 재밌게 지냈다. 내가 선택한 경영 수업은 나를 제외하곤 모두다 영국 토박이 애들이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았었다. 마케팅 수업은 세계 각지에서 온 애들을 한데 모아놓은 것 같은 분위기여서 또 그 나름대로 좋았다. 스페인어 수업과 프랑스어 수업은 학생들의 국적과 연령대가 엄청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재미가 쏠쏠했다.

하도 다양한 나라에서 모인 애들이 많다 보니, 어느 기숙사나 스튜디오(집 한 채를 여럿이서 공유)같은 곳에서 다들 모여 International food party 같은 독특한 파티를 제법 여러 번 열었다. 나

는 그 때마다 한국 부침가루를 이용해 맛있는 김치전과 야채전을 만들어 내 놓았었는데, 애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그렇게 한자리에서 맛 볼 수 있는 기회도 흔치 않은데, 그래서 더 재밌고 독특했던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지내는 1년 내도록 나를 제외한 한국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 가끔씩은 한국말로 얼굴을 마주하며 씬없는 수다를 떨어주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웠다. 전화 통화나 스카이프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그 미묘한 아쉬움... ^^ 그 대신 주말에 가끔씩 노팅험에 내려가서 중학교 시절 단짝 친구를 만나 한국말로 즐거운 수다를 떨었다. 참 다행이었다. 그 친구의 노팅험 대학교 지인들인 다른 한국인들도 많이 사귀고, 함께 재밌는 추억도 많이 쌓았다.

영국 학교 시스템은 한국이랑 다른 점이 많았다. 출석 체크도 명단을 일일이 불러가며 확인하지 않고, 강의실 문 옆에 있는 리더기에 학생증에 박힌 바코드를 읽히면 그게 출석 체크인 셈이었다. 그리고 과제나 발표수업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에 비해 굉장히 점수를 짜게 주었다. 처음엔 애들이 받은 점수들이 다 한결같이 낮아서 놀랬지만, 알고 보니 A, B, C, D를 나누는 기준이 한국과는 좀 많이 달랐다. 70점만 넘으면 A (excellent), 60 이상이면 B (very good), 50점 이상이면 C (satisfactory), 40점 이상이면 D였다. E 또는 F를 받으면 fail이었다. 그래서 애들이 에세이나 발표수업에서 보통 65점 이상을 받으면 좋아라 하면서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마지막 시험인 마케팅 시험을 끝으로 5월 9일자로 나의 실질적인 학교 생활은 마무리 되었다. 그리하여 14일부터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파리, 프라하, 비엔나를 돌았고, 마지막 한 주 동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독일인 친구 멜라니네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엄청 편하고 재밌게 지냈다. 여행객들이 찾아가기 힘든 명소들을 친히 부모님께서 운전해 주시며 이것저것 구경을 시켜줘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또 멜라니네 엄마와 아빠가 한의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질문을 끊임없이 하시는 바람에 내가 지난 4년간 대학교 수업과 병행하여 따로 배우고 익혔던 범위 내에서 조곤조곤 열심히 설명을 해 드렸더니, 엄청 흥미로워하며 일리가 있다고 맞장구까지 쳐 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더니, 열띤 응원을 보내주셨다. 비록 독일인 가정집 한 군데에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 내용들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몇몇 이야기만을 들려주었지만, 그래도 뭔가 긍정적인 반응들을 얻은 이 첫 번째 경험이 앞으로의 나에게 무한한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뿌듯하고 기뻐했다. 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며 나중에 자주 자주 와서 더 많은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또 오겠다고 약속했다. ^^

유럽 내에서는 저가항공으로 얼마든지 쉽고 다양하게 돌아다닐 수가 있다. 만약 후배들 중 영국이나 핀란드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여기 와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여행을 다녀보라고 적극 권하고 싶다. 혼자 다녀도 전혀 위험하거나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 말고 준비 잘 해서 최대한 다채로운 경험을 풍성하게 얻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 내가 그러했듯이 ^^ 이로써 내가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영국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던 리스트의 세부 사항들을 거의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다. 내가 상상했었던 것 그 이상의 것들을 경험하고 얻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영국에서 배웠던 프랑스어와 스페인어는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틈틈이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익혀서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고 싶다. 새로운 환경에 혼자서 적응해 나가고, 또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해내야 했던 부분이 많았던 탓인지, 지금 다시금 돌이켜보면 작년 9월 이전의 나보다 한층 더 어른스럽고 다부진 나 자신을 발견 할 수가 있다. 경험과 체험이 그 어떤 책 속의 지식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걸 새삼 실감한다. 정말 진심으로 뿌듯하고 보람된 한 해였다. 평생 잊지 못할 1년이 되지 싶다!

















